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3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3기

제2강
3월 28일(화)
오후 7시-9시

실크로드와 문명의 길: 문명교류의 바다 지중해



강사: **김정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시에나 국립대학교에서 중세문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중해 문명교류의 유형과 역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지중해지역원의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중해지역연구』의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저술로는 『지중해 문명교류학』, 『지중해문명교류사전』, 『지중해 다문화 문명』, 『남유럽의 전통기록물관리』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중세 III』, 『책공장 베네치아』, 『고대 로마 제국 15,000킬로미터를 가다』, 『밤의 역사』, 『치즈와 구더기』 등 다수가 있다.

지중해의 역사는 세계사의 축소판이다. 과거 18~19세기의 역사해석은 지중해와 유럽의 역사를 세계사의 중심으로 간주한 바 있다. 서구의 일방적인 역사해석은 지중해의 경우에도, 타자의 가치를 회복하는 노력을 통해 복원되어야 한다. 타자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가 이미 고대부터 다민족 글로벌화의 기나긴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사회성은 관계, 교류 그리고 변천의 중재요인을 고찰하는 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지중해 문명교류의 역사는, 고대의 경우 대규모 문명과 소규모 문명 간 공존의 관계구도에서 시작된 ‘다자간 교류의 시대’, 그리스-페르시아 간 문명충돌로 야기된 ‘전쟁과 정복의 시대’, 그리고 로마에 의한 유럽-지중해-북아프리카 문명의 통일로 정의할 수 있는 ‘로마의 지중해 통일’로 전개되었다. 반면 중세는 게르만과 이슬람의 출현을 계기로 유럽기독교문명과 중동-북아프리카 이슬람 문명 간 ‘이체음양 유형의 종교 문명 간 교류’로 시작되었다. 15~16세기 두 종교문명 간 교류의 시대는 유럽기독교문명의 대항해시대를 계기로 역사의 관심을 해(海)에서 양(洋)으로 옮겨간다.